

주간 통일정세

2017-22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5.27	北, 국제사회 추가 대북제재 논의 비난(연합뉴스)
		北 유엔대표부 “북극성-2 발사 정당…추가제재 반대”(연합뉴스)
	5.28	北 김정은, 신형 지대공 요격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연합뉴스)
		北 김영남·리용호, 아제르바이잔 국경절 축전(연합뉴스)
		北 김영남, 에티오피아 국경절 축전(연합뉴스)
	5.29	北 김선경, 슬로바키아 외교부 국장과 담화(연합뉴스)
		‘北 최고 건축가’ 최성천 사망…김정은, 조화 보내(연합뉴스)
	5.30	北 강일섭, 멕시코 주최 재해위험 감소 위한 회의에서 연설(연합뉴스)
		北 “정밀 유도 탄도로켓 시험발사”…김정은 참관(연합뉴스)
		김정은, 상이군인 근무 공장에 차량 선물(연합뉴스)
北 박봉주, 알제리 새 총리 임명자에게 축전(연합뉴스)		
5.31	北 최희철, 북한 주재 이란 대사와 담화(연합뉴스)	
	김정은, 축산기지 건설지원 일꾼들에 감사인사(연합뉴스)	
6.1	北 “탄도로켓 시비는 자주권 침해·내정간섭” 주장(연합뉴스)	
경제	5.27	“北 선박 20여척 中 항구서 포착…이전수준 회복”(연합뉴스)
		“北, 3월 중국에서 석유수입 크게 늘려”(연합뉴스)
		“러 경기 침체로 북-러 교역 규모 4년 연속 감소”(연합뉴스)
		“러-北, 올 1~2월 교역 73% 증가…러 석탄 수출 크게 늘어”(연합뉴스)
	5.29	“북한서 사재기로 유가 급등…작년보다 3배 올라”(연합뉴스)
		“불가리아 등 동유럽 3국 北노동자 고용 중단”(연합뉴스)
	5.30	세네갈, 北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핵 개발비 전용 우려”(연합뉴스)
	5.31	노르웨이, 추가 대북제재…채광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연합뉴스)
“안보리 대북제재 속 中 단등서 대북밀수 성행, 통제 어렵다”(연합뉴스)		
6.1	中선양에 북한 전문 배송업체 첫 개점…교류 활성화 기대(연합뉴스)	
	“北, 공급부족으로 세계에서 휘발유값 가장 비싼 나라”(연합뉴스)	
사회 문화	5.28	北 선전매체, 조립생산 트럭 브랜드 ‘천지’ 홍보(연합뉴스)
		함경남도 북청강변에 ‘청춘담’ 건설(연합뉴스)
	5.29	신의주항에서 대형 준철선 건조(연합뉴스)

외교 국방	5.30	“평양 가로등에 태양전지판 목격돼, 슈퍼마켓상품 60% 중국산”(연합뉴스)
	5.31	“北서 ‘김일성 칭송’ 선전물 가져 계란에 훼손…체제 불만 고조”(연합뉴스)
		北, ‘세계금연의 날’ 관련 행사 개최(연합뉴스)
		조선소년단 창립일 기념 사진전람회 개막(연합뉴스)
		김일성종합대학, 금연보조제 개발(연합뉴스)
	6.1	“北, 평양 5곳에 자전거 대여정류소 설치 중”(연합뉴스)
	5.27	北, 위안부 합의 日 반론문 제출 비난…“책임질 의무만 있어”(연합뉴스)
	5.28	北, 美항모 2척 합동훈련 비난…“초래될 것은 재앙뿐”(연합뉴스)
		G7 공동성명 “北, 핵프로그램 포기 안 하면 대북제재 강화”(연합뉴스)
	5.29	‘공중전력 열세’ 김정은, 북한판 패트리엇 KN-06 성능개량(연합뉴스)
		北 “한미합동훈련 할수록 北핵무기 美본토 깊숙이 겨냥”(연합뉴스)
		조선신보 “북미 핵 대결 최종단계…협상만이 유일한 선택”(연합뉴스)
	5.30	日 “北 발사 미사일, 日 배타적경제수역 내 낙하…강력 규탄”(연합뉴스)
北 “日, 대북제재 분위기 고취…군국화 명분 마련”(연합뉴스)		
6.1	北 “美 전략폭격기, 군사분계선 근처 해상 상공까지 접근”(연합뉴스)	
	北 외무성, G7 공동성명에 “도적이 매를 드는 격”(연합뉴스)	
6.1	北, 美 핵항모 합동훈련·ICBM 요격시험 비난(연합뉴스)	
	北, ‘트럼프 4대 대북기준’에 첫 반응…“부끄러운 골동품”(연합뉴스)	
	美 상원, 北 탄도미사일 대비 MD 강화 법안 발의(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 일자	보도 내용	수행자	비고
5.28	신형 반항공 요격유도 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	황병서, 리영길, 오금철, 김광혁, 리병철, 김정식, 정승일	-
5.30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발사 공개 활동	리병철, 김락겸, 김정식, 장창하, 정승일, 전일호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5. 28.

■ 北 김정은, 신형 지대공 요격무기체계 시험사격 참관(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형 지대공 요격유도무기체계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에 맞게 작전 배치된 신형 반항공(지대공) 요격유도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믿음성을 검증하고 보다 현대화, 정밀화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요격유도무기체계 시험사격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시험사격은 불시에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적 공중목표들을 타격·소멸하는 것으로 가상하여 정확을 조성하고 임의의 방향에서 날아오는 각이한(여러가지) 공중목표들을 탐지 및 요격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함.

2017. 5. 29.

■ ‘北 최고 건축가 최성천 사망…김정은, 조화 보내(연합뉴스)

- 북한 최고의 건축가로 꼽히는 최성천이 향년 87세를 일기로 사망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조화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김정은은 김정일상 수상자이며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인 국가과학원 녹색건축연구소 연구사 최성천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전날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통신은 전함.
- 최성천은 생전 평양 만수대 김일성 주석의 동상, 주체사상탑, 5월1일 경기장 등 대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2017. 5. 30.

■ 北 “정밀 유도 탄도로켓 시험발사”…김정은 참관(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정밀 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전사들은 정밀 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을 새로 개발하고 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함.
- 통신은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 지난해에 적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의 바늘귀 같은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우리식 탄도로켓을 개발할 데 대한 연구 종자(과제)를 주시었다”며 이번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 개발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힘.

■ 김정은, 상이군인 근무 공장에 차량 선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상이군인들이 근무하는 낙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 공장에 차량을 선물로 전달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함.
- 선물 전달 모임은 지난 29일 진행됐으며 안정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경공업 부장)이 선물 전달사를 했다고 보도함.

2017. 5. 31.

■ 김정은, 축산기지 건설지원 일꾼들에 감사인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5. 28.

■ 北 김영남 리용호, 아제르바이잔 국경절 축전(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제르바이잔 국경절을 기념해 28일 일함 알리에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으며,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날 엘마 맘마디아로프 외교장관에게 관련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함.

■ 北 김영남, 에티오피아 국경절 축전(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에티오피아의 국경절을 기념해 28일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김선경, 슬로바키아 외교부 국장과 담화(연합뉴스)**

- 김선경 북한 외무성 유럽2국 국장이 지난 26일 슬로바키아 외교부 청사에서 마리안 토마쉬크 슬로바키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2017. 5. 29.

■ **北 강일섭, 멕시코 주최 재해위험 감소 위한 회의에서 연설(연합뉴스)**

- 강일섭 북한 국가비상재해위원장이 지난 26일 멕시코에서 열린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세계연단장 회의에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2017. 5. 30.

■ **北 박봉주, 알제리 새 총리 임명자에게 축전(연합뉴스)**

- 박봉주 북한 내각 총리가 알제리 새 총리로 임명된 압델마지드 테부네에게 30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이날 알제리 외교장관으로 임명된 압둘카디르 무사힐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함.

■ **北 최희철, 북한 주재 이란 대사와 담화(연합뉴스)**

- 최희철 북한 외무성 부상이 30일 세예드 모흐센 에마디 북한 주재 이란 대사를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5. 27.

■ **北, 국제사회 추가 대북제재 논의 비난(연합뉴스)**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에서 대북 추가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 외무성 부상이 27일 미국과 일부 국가들을 비난함.

- 박명국 외무성 부상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공화국이 터쳐올린(터뜨린) 핵 무력 강화의 다발적이며 연발적인 뇌성에 질겁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에게 대한 그 무슨 ‘추가제재’를 운운하며 우리를 어찌 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박 부상은 미국이 반(反)북한 규탄 분위기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의 동맹국들이라는 일부 나라들이 각기 그 무슨 ‘규탄’ 성명이니 뭐니 하는 것을 발표하는 노름을 벌인 것은 미국의 이러한 각본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함.

■ 北 유엔대표부 “북극성-2 발사 정당…추가제재 반대”(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북한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시험발사는 정당했다면서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김인룡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26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지난 21일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당시 시험발사는 북극성-2형의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을 확인하고, 실전 배치 전 다양한 조건에 대한 적응력을 검사하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함.
- 김 차석대사는 “방어를 위한 군사 능력 강화와 (실전)배치 이전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절차의 일부”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당시 시험발사에 채택한 언론성명은 물론, 추가 대북 제재에도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2017. 6. 1.

■ 北 “탄도로켓 시비는 자주권 침해·내정간섭” 주장(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대표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군축회의에서 “우리의 탄도로켓 시험발사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격화의 주범인 미국의 무모한 침략책동에 대처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함.
- 북측 대표단은 이어 “이에 대하여 일부 나라들이 시비하는 것은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고 내정간섭”이라고 강변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7. 5. 29.

- **“북한서 사재기로 유가 급등…작년보다 3배 올라”(연합뉴스)**

- 북한 시장에서 최근 사재기 등으로 유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올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5월 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름값이 지난해 이맘 때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기름값이 갑작스럽게 오르자 더 많은 차익을 얻기 위해 개인과 외화벌이 회사들이 휘발유와 디젤유를 마구잡이로 사재기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청진시에서 휘발유 kg당 중국 돈 4위안(한화 660원)이었던 가격이 현재 중국 돈 12위안(한화 2천원)까지 상승함.

2017. 6. 1.

- **“北, 공급부족으로 세계에서 휘발유값 가장 비싼 나라”(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한달여 유가 급등으로 전 세계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관영 신화통신 자매지인 참고소식망(參考消息網)이 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평양의 휘발유가격이 ℓ당 6~6.35 위안(약 998~1천57원)에서 지난달 말 ℓ당 11.26 위안(약 1천873원)으로 한달여 만에 77.3~87.7% 정도 인상됨.
- 참고소식망은 “평양 주변의 여러 주유소에선 휘발유 한정판매 조치를 취해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 1인당 구매량 등을 제한했다”면서 “주유소 운영이 불규칙하지만 지난 4월 휘발유 공급 부족으로 길게 늘어서던 차량행렬이 줄었다”고 보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5. 27.

■ “北 선박 20여척 中 항구서 포착…이전수준 회복”(연합뉴스)

- 북·중간 석탄거래가 이뤄졌던 중국 항구들에서 최근 북한 선박 20여 척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 자료를 인용해 지난 23일부터 26일 현재까지 북한 선적 ‘장진강’호와 ‘금송7’호, ‘금강산’호, ‘민흥’호 등 6척이 중국 룡커우 항에서 10여 km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밝힘.
- 옌타이 항 인근 공해 상에도 ‘태송’호와 ‘강안1’ 호, ‘강남 1’ 호 등 10척이 사흘 넘도록 머물고 있으며 평라이 항에는 25일을 전후해 ‘해방산’호와 ‘자모산’호가 머물렀다 출항한 것으로 나타남.

2017. 5. 29.

■ “불가리아 등 동유럽 3국 北노동자 고용 중단”(연합뉴스)

- 불가리아와 체코, 루마니아가 북한 노동자 고용을 중단했다고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이 29일 밝힘.
- 대사관은 이날 “이들 동유럽 세 국가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의 현실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힘.
- 대사관은 이어 “노동자 고용 중단 조치는 해당 국가들이 노동자 임금 착취에 대응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덧붙임.

2017. 5. 30.

■ 세네갈, 北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핵 개발비 전용 우려”(연합뉴스)

- 세네갈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세네갈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에 “북한 기업 만수대창작사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과 단기체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명시했다고 VOA는 전함.

- 비자 발급 중단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이뤄졌으며, 이는 “세네갈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세네갈 정부는 적시함.

2017. 5. 31.

■ **노르웨이, 추가 대북제재...채광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연합뉴스)**

- 노르웨이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전함.
- RFA에 따르면 노르웨이 외교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힘.
- 노르웨이가 시행하는 추가 대북제재에는 노르웨이 국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북한과 관련된 무기 산업과 금속 및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금지, 특히 채광 작업과 연관이 있는 컴퓨터 판매와 서비스를 북한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노르웨이 국민과 기업은 화학 및 정유 산업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됨.

■ **“안보리 대북제재 속 중 단둥서 대북밀수 성행, 통제 어렵다”(연합뉴스)**

-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 중인 가운데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과의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홍콩 대공망(大公網)이 3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遼寧)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보따리장수들이 생필품 등을 가지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북한산 옹담, 술, 수산물 등을 몰래 들여와 수익을 남기고 있음.
- 단둥에서 대북 수출업을 하는 스톤(石林) 씨는 북한을 자주 찾는 상인들을 인용해 “수요 때문에 장사(밀수)가 끊이지 않는다”며 “보따리장수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밀수품을 몰래 숨겨서 내다팔면 수입이 짹짹하고 외부 정세에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언급함.

■ **중선양에 북한 전문 배송업체 첫 개점...교류 활성화 기대(연합뉴스)**

- 북한과 인접한 중국 랴오닝(遼寧)성의 성도 선양(瀋陽)에 북한 평양에 소포 등을 배송하는 전문 배송업체가 사상 처음으로 개점함.

- 이 업체는 특히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해 제재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사업 승인을 내준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됨.
- 31일 접경지역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선양(瀋陽)에 최근 ‘선양~평양 특급화물중심’이 개점해 국제화물 배송서비스를 개시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5. 28.

- **北 선전매체, 조립생산 트럭 브랜드 ‘천지’ 홍보(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가 화물트럭 조립회사를 홍보하며 ‘천지’ 브랜드의 화물트럭 사진들을 공개함.
 -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28일 홈페이지의 ‘명품 소개’ 코너에 ‘천지’ 트럭 사진이 포함된 2장의 홍보 포스터를 게재함.
 - 포스터는 평양시 낙랑구역 전진동 소재 삼흥회사를 소개하며 “화물차 조립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화물자동차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힘.
- **함경남도 북청강변에 ‘청춘댐’ 건설(연합뉴스)**
 - 함경남도 북청강변에 자리 잡은 봉덕관계수로 취입구역에 ‘청춘댐’이 건설됐다고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가 28일 알림.

2017. 5. 29.

■ **신의주항에서 대형 준설선 건조(연합뉴스)**

- 신의주항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생산능력이 4배 이상인 대형 준설선을 건조해 압록강에 띄웠다고 북한 관영 라디오 매체 조선중앙방송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오늘’이 29일 전함.

2017. 5. 30.

■ **“평양 가로등에 태양전지판 목격돼, 슈퍼마켓상품 60% 중국산”**

- 북한 수도 평양의 건물과 가로등마다 태양전지판이 달린 게 목격됐으며 이는 부족한 전기를 확보하려는 사정을 볼 수 있는 광경이고, 슈퍼마켓의 상품 중 60%가량이 중국산이라고 홍콩매체 봉황주간(鳳凰周刊)이 30일 보도함.
- 이어 “한밤중 평양은 예상보다 밝았으나 대부분의 전깃불이 북부 만수대(김일성·김정일 동상이 있는 곳)와 김일성광장 일대에 집중됐고 다른 장소는 어두웠다”면서 “거의 모든 상점, 빌딩과 가로등에 태양전지판이 달려 북한의 전력부족 현실을 반영했다”고 묘사함.
- 봉황주간은 “2011년 보통강변 일대에 광복쇼핑센터, 보통강백화점이 개점해 슈퍼마켓 개념이 일반인 의식에 자리잡았다”며 “2010년 이후 정부 허가를 받은 상업센터수가 2배로 늘어 현재 440여 개에 100여 만명의 인원이 종사하며, 대소 농업시장 40여 개가 들어서는 등 북한에서 상업이 움텄다”고 보도함.

2017. 5. 31.

■ **“북서 ‘김일성 칭송’ 선전물 가짜 계란에 훼손…체제 불만 고조”(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김일성 주석을 칭송하는 선전물이 날아든 ‘가짜 계란’에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도쿄신문이 31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에서 최근 검은 액체를 넣은 계란 모양의 물체를 김일성 주석 등 최고지도자를 칭송하는 현수막과 전시물에 던져서 손상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고 전함.
- 투척된 것은 깨지기 쉬운 껍질로 된 계란 모양의 물체로, 주사기 같은 도구로 잉크 같은 검은 물체가 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이 이 일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이달 중순 평양에서 열린 한 회합에서 보고 후 1주일

사이 각 ‘인민반’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 **北, ‘세계금연의 날’ 관련 행사 개최(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세계금연의 날’인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관련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개정된 북한 담배통제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고 보도함.

■ **조선소년단 창립일 기념 사진전람회 개막(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소년단 창립일(6월 6일) 71돌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전람회 ‘해님과 해바라기들’이 3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개막했으며,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함.

■ **김일성종합대학, 금연보조제 개발(연합뉴스)**

- 김일성종합대 평양의학대학이 피부에 붙이는 금연보조제인 ‘니코틴 반창고’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함.

2017. 6. 1.

■ **“北, 평양 5곳에 자전거 대여정류소 설치 중”(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 시내 5곳에 자전거 대여정류소를 설치 중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가 1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지난 5월 입수한 사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평양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정류소에서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칠해진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고 밝힘.
-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의 여행 가이드 로완 비어드는 NK뉴스에 “(자전거 정류소들을) 평양 시내 다섯 군데에 설치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완공돼 시범 운영 중인 한곳을 제외하고) 다른 네 곳의 정류소들은 아직 건설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이 정류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하거나 다시 세워둘 때 특정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분당 요금은 (북한돈) 40원이고 시간당 요금은 3천 원(한화 500원)”이라고 언급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5. 28.

■ 北, 美항모 2척 합동훈련 비난…“초래될 것은 재앙뿐”(연합뉴스)

-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이 내달 초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은 28일 합동훈련으로 초래될 것은 ‘사상 최대의 재앙뿐’이라고 위협함.
- 북한의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시기에도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해역에 핵 항공모함 타격단(전단)들을 수시로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해보려고 발광해 왔지만, 이번 처럼 2개의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끌어들이 합동군사훈련 놀음까지 벌이려고 발악적으로 날뛰 적은 없었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미국과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군사적 대결책동을 우리의 위업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로 낙인하고 준열히 단죄·규탄한다”고 밝힘.

2017. 5. 29.

■ 北 “한미합동훈련 할수록 北핵무기 美본토 깊숙이 겨냥”(연합뉴스)

- 북한은 29일 한미가 연합훈련에 매달릴수록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본토를 더 깊숙이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식 허세는 통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기어이 북침 핵전쟁에 불을 달아보려고 발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중앙통신은 내달 초 동해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2척 등이 투입돼 열릴 합동훈련에 대해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며 미국의 체제보장 발언이 한갓 ‘기만술책’에 불과하다고 강변함.

■ 조선신보 “북미 핵 대결 최종단계…협상만이 유일한 선택”(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가 북미 핵 대결이 최종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양국의 협상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촉구함.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9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 (미국 뉴욕 소재) 소장과의 인터뷰를 실어 이같이 주장함.
- 한 소장은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 영도자로서 활동하게 된 이후에 조미(북미) 핵 대결이 본격화되고 최종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 나의 분석”이라며 “최종단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조선(북한)이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하게 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2017. 5. 30.

■ 北 “美 전략폭격기, 군사분계선 근처 해상 상공까지 접근”(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지난 29일 군사분계선(MDL) 근처 해상 상공까지 접근했다고 주장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미제는 악명높은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또다시 남조선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훈련을 벌여놓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보도함.
- 이어 “이날 새벽 광도에서 이륙한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는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조선(북한) 동해 강릉 동쪽 80km 해상상공에까지 날아들어 이미 조선 동해에 전개되어 괴뢰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벌리고 있는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칼빈슨호)에 탑재된 추격습격기(전투기)들과 함께 우리의 중요대상물들을 정밀타격하는 합동훈련을 미친 듯이 벌여놓았다”고 주장함.

2017. 6. 1.

■ 北, 美 핵항모 합동훈련·ICBM 요격시험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1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달 31일 한반도 해역에서 최초로 진행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와 로널드 레이건호(CVN 76)의 합동훈련을 비난함.
- 아태평화위는 담화에서 “최근 비상히 강화되는 우리의 군사적 위력에 질겁한 미국이 ‘칼빈슨’호 핵항공모함타격단과 ‘로널드 레간’호 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동해에 들이밀어 합동군사훈련을 벌여놓는 것과 함께 조선반도 유사시에 투입될 핵전략자산들을 현대화하여 공격력을 높이는데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함.
- 담화는 또 “며칠 전에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ICBM) 공격을 막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미사일) 요격훈련이라는 것까지 벌여 놓았다”고 비난함.

■ **北, '트럼프 4대 대북기조'에 첫 반응…“부끄러운 골동품”(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약 8천100자 분량의 개인 필명의 글을 게재해 “이른바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세상에 내놓기에는 실로 부끄러운 골동품이 아닐 수 없다”며 “주요 부처들과 제노라하는(내로라하는) 두뇌 진들이 모여들어 북적거리길래 무슨 일이라도 치는가 했더니 큰 산이 울어 생쥐 네 마리가 나온 격”이라고 원색 비난함.
- 글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우리가 핵을 보유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핵보유국 불인정은 실체상 우리 공화국이 더는 무시할 수 없는 핵 강국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완곡된 표현, 무언의 선언”이라고 강변함.

■ **美 상원, 北 탄도미사일 대비 MD 강화 법안 발의(연합뉴스)**

-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미국미사일방어진전법안’(Advancing America's Missile Defense Act·S.1196)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응해 미국 본토의 MD 체계를 강화,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주에 발의됐다고 RFA는 전함.
- 북한 ICBM급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덴 설리번(공화)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 14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2017. 5. 27.

■ **北, 위안부 합의 日 반론문 제출 비난…“책임질 의무만 있어”(연합뉴스)**

- 북한은 27일 일본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 유엔에 반론문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책임질 의무만 있다”고 비난함.

- 북한의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 5월 상순 유엔 고문반대(방지)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한 일본·남조선 사이의 ‘합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나서며 그 무슨 ‘반론문서’라는 것을 제출한 것”이라며 일본이 위안부들을 ‘성노예’라고 규정한 유엔에 사실과 어긋나고 부적절하다고 ‘앙탈’을 부렸다고 비난함.

2017. 5. 29.

■ **日 “北 발사 미사일, 日 배타적경제수역 내 낙하…강력 규탄”(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9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력하게 규탄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우리나라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 그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이란 관점에서 매우 큰 문제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함.

■ **北 “日, 대북제재 분위기 고취…군국화 명분 마련”(연합뉴스)**

- 북한은 29일 일본이 군국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제재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위협이요 도발이요 하고 걸고 들면서 못되게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이어 “지금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여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며 테러대책의 간판 밑에 전국을 감시망 속에 몰아넣고 파쇼화하려는 우익세력의 책동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광범한 인민들은 물론 정계에서까지 울려 나오고 있다”고 주장함.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5. 28.

■ G7 공동성명 “北, 핵프로그램 포기 안 하면 대북제재 강화”(연합뉴스)

- 27일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수준의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 G7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된 결의안을 즉각적·전면적으로 준수하고, 모든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함.
-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 국제사회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2017. 5. 30.

■ 北 외무성, G7 공동성명에 “도적이 매를 드는 격”(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대북 규탄 공동성명에 대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금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제일 많이 한 것도 7개국들이며, 남조선에 공격용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전쟁 장비를 경쟁적으로 팔아먹으면서 지역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7개국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외무성 대변인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무리를 지어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힘이 약한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못살게 굴겠는가 하는 꿩꿩이판을 벌려놓곤 하는 것이 7개국 수뇌자(정상) 회의”라고 언급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5. 28.

■ ‘공중전력 열세’ 김정은, 북한판 패트리엇 KN-06 성능개량(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반항공 요격 유도무기체계 시험사격’에 성공했다며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사진 속 KN-06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콜드 런치’(cold launch·냉발사) 방식으로 수직 발사된 다음, 일정 높이에서 점화돼 목표물을 향해 비행함.
- KN-06은 항공기를 요격하는 방공 무기이지만,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이번 KN-06 시험발사 사진에서는 작년 4월과는 달리 목표물의 검은색 폭발흔까지 보이지만, 미사일 요격 가능 여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6.1	외교부 “사드배치, 美와 긴밀협약· 中과 진정성있게 소통”(연합뉴스)	
	6.2	정의용 “사드 환경영향평가 철저하… 배치 시간 더 걸릴 듯”(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5.31	中, ‘韓사드 보고누락’ 파문에 “엄중 한 우려” 표명(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6.1	위안부합의 지키기 나선 日… 한일 장외 신경전 치열할 듯(연합뉴스)	
	6.2	文대통령,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 “北도발행위 용인 못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5.27	中美 '항행의 자유' 시위 당일에 中전투기, 美정찰기 비행 방해(연합뉴스)	
	5.28	美·中, 남중국해 이어 홍콩 인근 상공서 대치(연합뉴스)	
	6.1	美, 대북 강력 독자제재 발표...인민군·국무위 등 핵심기관 포함(연합뉴스)	
	6.2		세계 각국 지도자들, 美 파리기후협정 탈퇴 움직임 일제히 비난함(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5.29		日야베 "北 미사일도발 용인못해...구체적 행동 취할 것"(연합뉴스)
	6.1	"日, 北 견제 美핵항모 칼빈슨·레이건호와 공동훈련"(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6.1		푸틴 "사드 한국 배치 등 美 MD 확장 좌시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6.2		푸틴 "트럼프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 개인적 관계 희망"(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5.30	中·러, 북핵해법 공동인식...군사수단 배제, 대화·협상 해결(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5.26	中왕이 만난 푸틴, 국제문제 협력약속...북핵 대화해법 공유한듯(연합뉴스)	
		러시아·중국 외교장관 모스크바서 회담...“사드 한국 배치 반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5.24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6. 1.

■ 외교부 “사드배치, 美와 긴밀협의·中과 진정성있게 소통”(연합뉴스)

- 외교부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의 정신에 따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국과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익 중심의 협력외교를 추진한다는 기조하에 사드 배치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 관련 문제의 초점은 배치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포함해 절차적으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임.

2017. 6. 2.

■ 정의용 “사드 환경영향평가 철저히…배치 시간 더 걸릴 듯”(연합뉴스)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하기에 앞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함.
- 또 환경평가를 하게 되면 사드 배치 완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함.
- 이틀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2017. 5. 31.

■ 中, ‘韓사드 보고누락’ 파문에 “엄중한 우려” 표명(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31일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고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사드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피력함.
- 그는 이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 안전 및 안보 이익을 엄중히 훼손하며 지역의 전략 균형도 파괴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 실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 한·일 관계

2017. 5. 28.

■ 위안부합의 지키기 나선 日…한일 장외 신경전 치열할 듯(연합뉴스)

- 한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합의를 지키기 위한 ‘외교전’을 본격화 함.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에서 만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일본의 정상이 다자외교의 최고위직인 유엔 수장과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한일 위안부 합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최근 위안부 합의 수정 권고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읽힘.

2017. 5. 30.

■ 文대통령,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北도발행위 용인 못해”(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0일 오후 전화 통화를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일본 외무성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날 오후 5시 45분부터 약 15분간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힘.
- 외무성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유엔의 장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히 협력,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한일,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을 확인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5. 27.

■ 中美 ‘항행의 자유’ 시위 당일에 中전투기, 美정찰기 비행 방해(연합뉴스)

- 미국 해군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지난 24일 미 해군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로 인해 비행을 방해받았다고 미 국방부가 밝힘.
-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난 24일 중국 J-10 전투기 2기가 국제 공역(空域)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P-3 정찰기를 방해했다”며 우려를 표시함.
- 당시 미 해군 정찰기는 홍콩에서 남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국제 공역에 있었으며, 중국 전투기 1대가 불과 180m 전방에서 비행했다고 전함.

2017. 5. 28.

■ 美·中, 남중국해 이어 홍콩 인근 상공서 대치(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해상에 이어 홍콩 인근 상공에서 군사적인 대치를 하면서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2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25일 홍콩에서 남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국제 공역에서 중국 쥘(殲)J-10 전투기 2대가 작전 중이던 해군 P-3 오리온 정찰기를 방해했다고 확인함.
-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미 해군 정찰기는 홍콩 남동쪽 240km의 국제공역에 있었고, 중국 전투기 1대가 불과 180m 전방까지 근접해 비행했다고 상황을 전함.

2017. 6. 1.

■ **美, 대북 강력 독자제재 발표...인민군·국무위 등 핵심기관 포함(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미사일과 핵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제재에 나선.
-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으로 발표했고, 이는 올해 들어 2번째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 양자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임.
- 제재 대상은 개인의 경우,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정부 관계자인 김수광, 이고리 미추린(러시아인)등이며, 단체에는 조선대령강무역회사와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NHK 프리모르네프테프로드트, 아르디스-베어링스, 독립 석유회사 등이 포함됨.

2017. 6. 2.

■ **세계 각국 지도자들, 美 파리기후협정 탈퇴 움직임 일제히 비난함(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이 임박하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미국에 기후협정 탈퇴 재고를 요구하고 나선.
- 미국이 파리 협정을 실제로 탈퇴하면 유럽연합(EU) 차원의 보복 조치와 함께 세계 각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옴.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회담을 열고 파리기후협정 준수 의지를 확인하고 세계가 불안정한 이 시기에 한층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음.

나. 미·일 관계

2017. 5. 29.

■ **야아베 “北 미사일도발 용인못해...구체적 행동 취할 것”(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 북한의 이날 새벽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미국과 함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날 관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함.

- 그는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처럼 북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7. 6. 1.

■ “日, 北 견제 美해항모 칼빈슨 레이건호와 공동훈련”(연합뉴스)

-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미군의 항공모함 2척과 함께 공동훈련을 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함.
- 해상자위대 헬기탐재 호위함 ‘휴가’는 이날 미국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칼빈슨호와 동해에서 공동훈련을 할 예정임.
- 휴가는 지난달 31일 오전 교토(京都)부 마이즈루(舞鶴)기지에서 출항했고 지난달 16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를 떠난 로널드 레이건호 역시 같은 날 동해에 진출했다. 칼빈슨호는 지난 4월 말 동해에 옴.

다. 미·러 관계

2017. 6. 1.

■ 푸틴 “사드 한국 배치 등 美 MD 확장 좌시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비롯한 미국 미사일방어(MD)망의 전 세계적 확장을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며 합당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경고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한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세계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힘.
- 푸틴은 “당초 유럽 지역 MD망 구축의 이유로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들었던 미국은 이란과 서방이 핵프로그램 중단 협정을 체결해 위협이 없어진 지금도 MD 구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미국 MD 시스템 확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 MD 시스템(사드)에도 해당한다”고 말함.

2017. 6. 2.

■ 푸틴 “트럼프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 개인적 관계 희망”(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러시아 내통설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그와 업무 관계뿐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밝힘.
-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한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견해를 표시함.
- 푸틴은 트럼프에 대해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이다.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전형적 정치인으로 분류할 순 없지만 이런 사람은 신선한 시각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아주 자주 일정한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푸틴 “애국심 강한 러시아 해커들이 美대선 개입했을 수도”(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지난 미국 대선에 러시아 정부가 해킹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애국심이 강한 러시아 민간 해커들의 소행일 수 있다고 밝힘.
-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한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힘.
- 푸틴 대통령은 해커들은 “예술가와 같다”면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에 따라 목표물을 선택하며, “만약 그들이 애국심이 강하다면, 러시아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이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기여를 하는데 나선다”고 주장함.

라. 중·일 관계

2017. 5. 30.

■ 中·러, 북핵해법 공동인식…군사수단 배제, 대화 협상 해결(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수단 사용을 배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북핵해법 인식을 함께 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30일 보도함.

- 신문은 구체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명확히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이어 26일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을 거론하며 “중국은 군사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과거든 미래든 어떤 국가도 군사적 수단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도 이에 동의했다”고 소개함.

마. 중·러 관계

2017. 5. 26.

■ **중왕이 만난 푸틴, 국제문제 협력약속…북핵 대화해법 공유한듯(연합뉴스)**

-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추가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됨.
- 26일 중국 외교부와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5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협력은 물론 공동 노력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함.
- 중국과 러시아 양측은 자세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주요 국제관심사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해법에 의견을 함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1일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함으로써 안보리에서 추가제재가 논의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그에 동참하지 않고 사실상 그와 상반된 행보를 보임.

■ **러시아·중국 외교장관 모스크바서 회담…“사드 한국 배치 반대”(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등 한반도 위기의 군사적 해결에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무부 영빈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지지하며, 긴장을 조장하는

모든 부정적 행동과 발언에 반대한다”면서 “북한 핵문제를 구실로 내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에도 반대한다”고 말함.

- 왕 부장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력적 방법은 어느 국가의 선택이 돼서도 안 된다”면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그러면서 “새로 취임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하며, 결국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데 주목한다”고 덧붙임.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5.31	유엔, 북한에 납북 어부 등 강제실종 34건 정보 요청(미국의 소리)
	5.30	북, 불법영상물 처벌 강화(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6.1	북 돈주들, 허위진단서로 농촌동원 빠져(자유아시아방송) 북한 발육장애아 한국의 11배(자유아시아방송)
	6.2	북한, 가뭄과 기름난 속 '모내기 전투'(미국의 소리)
북한인권 남한동향	5.30	유진벨재단, 北 결핵센터 방문...새환자 400명 등록(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5.30	"북중국경서 실종 탈북민, 中당국서 조사받는 듯"(연합뉴스)
	5.31	인권위 "새터민 입원해 일 못하면 정착지원 기간 늘려줘야"(연합뉴스) 유엔인권사무소 연례보고서에 KAL기 납북피해 사연 담겨(연합뉴스)
	6.1	한국 인권위 "한국 내 탈북민 44%, 부당한 대우 참아"...제도 개선 권고(미국의 소리)
대북지원	5.31	독일 NGO, 북한서 145만 달러 영양개선 사업(미국의 소리)
	6.1	프랑스, 대북 식량안보 사업 21만 달러 지원(미국의 소리) 미 NGO, 북한에 정수기와 방한용품 선적(자유아시아방송)
	6.2	WFP, 4월 北 취약계층 76만 명에 식량 지원(연합뉴스)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5. 31.

■ 유엔, 북한에 납북 어부 등 강제실종 34건 정보 요청(미국의 소리)

-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에 강제실종 사건 34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힘.
-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함. 특히 강제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음. 하지만,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국군포로와 납북 어부, 북송 재일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여 명이 북한에 의해 강제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5. 30.

■ 북, 불법영상물 처벌 강화(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비사회주의 행위로 처벌하던 불법영상물 관련 범죄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당국이 최근 인민반 회의에서 주민들을 향해 “앞으로 불법영상물의 반입과 시청을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힘. 반국가적 행위는 최고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소식통은 “불법영상물은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상물을 말한다”며 “기존에는 불법영상물을 반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 즉 자본주의 황색문화로 규정하고 처벌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반국가적 행위로 몰아 간첩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임.

2017. 6. 1.

■ 북 돈주들, 허위진단서로 농촌동원 빠져(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 농촌지원 총동원령이 내리면서 노력동원에서 빠지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뇌물만 고이면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등록할 수 있는 허위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힘.
- 지난 5월 27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숟가락 들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농촌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중앙의 선전선동에 주민들이 야유하고 있다”면서 “숟가락 말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농촌동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나며 조롱하고 있다”고 전함.
-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환자가 되느냐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며 “힘없는 주민들은 연일 모내기 등 농사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은 허위진단서를 바치고 빈둥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북한 발육장애아 한국의 11배(자유아시아방송) 북한, 가뭄과 기름난 속 ‘모내기 전투’ (미국의 소리)**

-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1일, 전세계 어린이 생활환경평가 첫 보고서인 ‘2017 아동기 종말지수(End of Childhood Index 2017)’를 발표함.
- 북한은 8가지 항목 가운데 생후 59개월까지의 어린이 영양실조로 인한 성장장애 비율이 한국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어린이 1천명 당 사망률은 북한이 한국의 7배, 나이는 찻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수는 4배, 그리고 19살까지 인구 10만명 가운데 살해 당하는 어린이의 비율은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2017. 6. 2.

■ **북한, 가뭄과 기름난 속 ‘모내기 전투’ (미국의 소리)**

- 북한에서는 요즘 ‘모내기 전투’가 한창임. 북한 당국은 5월 중순이 되면 중학생부터 대학생, 군인, 공무원, 노동자 등 수 천, 수 만 명을 동원해 농촌 지원에 나섬.
- 모내기가 잘 되려면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은 현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음. 또한 북한은 양수기는 물론 농기계를 가동할 기름마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음.

- 부족한 비닐박막도 북한의 모내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모내기를 하려면 4월에 비닐로 보온 못자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북한은 비닐박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문가들은 비료 부족도 문제라고 말함. 벼와 강냉이 (옥수수)가 제대로 자라려면 봄, 여름에 질소, 인산, 칼리 같은 비료를 충분히 주어야 하는데 북한은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5. 30.

■ 유진벨재단, 北 결핵센터 방문…새환자 400명 등록(연합뉴스)

- 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밝힘.
- 유진벨재단 측은 이날 “이번 방북은 사전에 (북측과) 합의된 일정대로 잘 진행되었다”며 “우리 대표단은 12개 다제내성결핵 센터를 모두 방문하여 400명 이상의 새 환자를 등록시킬 수 있었다”고 전함.
- 하지만 재단 측은 “북한 내 연간 신규 다제내성결핵 발병 수가 4천~5천 명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강조함.
- 스티븐 린튼(인세반) 회장을 비롯해 총 11명으로 구성된 방북 대표단은 유진벨재단이 지원하는 다제내성결핵 센터들을 방문하고 6개월분의 다제내성 결핵약과 기타 지원물품(영양식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5. 30.

■ “북중국경서 실종 탈북민, 中당국서 조사받는 듯”(연합뉴스)

- 북·중 접경지역에서 지난 29일 실종된 60대 탈북민이 현재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9일 실종된 탈북민 A 씨가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의 룡정(龍井)시 싰허(三合) 지역 변방 부대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A 씨가 실종 직전 중국 국경 일대에서 휴대가 금지된 카메라를 들고

있어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변방부대 요원들이 단속했고,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함.

- 정부 당국자는 A씨가 변방부대에 억류됐다는 소식통의 언급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민간 측으로부터) 듣긴 했는데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중국이 단오절 연휴라 곧바로 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밝힘.

2017. 5. 31.

■ 유엔인권사무소 연례보고서에 KAL기 납북피해 사연 담겨(연합뉴스)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연례보고서에 1969년 대한항공 항공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사연이 소개됐다고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전함.
-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관계자를 인용해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30일(현지시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유엔 회원국들과 비정부단체(NGO)에 이 보고서 내용을 공식 브리핑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활동 성과를 전하면서, 주목할 문제로 1969년 북한이 강릉 상공에서 공중 납치한 대한항공 YS-11기 사례를 조명함.

■ 인권위 “새터민 입원해 일 못하면 정착지원 기간 늘려줘야”(연합뉴스)

- 몸이 아파 병원에 장기 입원한 새터민(탈북자)에게는 정부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함.
- 인권위는 새터민 정착자산 형성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늘리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1일 밝힘.
- 새터민 정착자산 형성제도는 새터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중 취업해 받은 임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장 4년간 매월 저축액수만큼 지원금(최대 50만원)을 1:1 매칭 방식으로 주는 제도임.
- 거주지 보호기간은 하나월 퇴소 후 5년간이며, 입대나 출산으로 일할 수 없는 새터민에 한해 ‘거주지보호기간’을 최장 2년 연장해줌.
- 인권위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장기입원하거나 필수적인 직업훈련을 받느라 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연장 사유로 인정해야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함.

-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고용센터 새터민 대상 취업상담과정을 개선·활성화하고 노동권 상담과 구제 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함.

2017. 6. 1.

- **한국 인권위 “한국 내 탈북민 44%, 부당한 대우 참아”...제도 개선 권고(미국의 소리)**
 -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중 4명은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민은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해고 등을 당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에서 노동은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인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탈북민 노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은 채용 과정에서는 물론 직장 내에서도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취업 상담 과정 개선, 노동권 상담과 구제기능 강화 등 탈북민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힘.
 - 또한 인권위원회는 탈북민의 취업률과 장기 근속률을 높이기 위해 먼저 통일부가 운영하는 ‘정착자산 형성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5. 대북지원

2017. 5. 31.

- **독일 NGO, 북한서 145만 달러 영양개선 사업(미국의 소리)**
 - 독일의 구호단체 벨트홍게르힐페, 세계기아원조의 시몬 포트 대변인은 최근 황해도와 평안남북도에서 새로운 영양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힘.
 - 포트 대변인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총 130만 유로, 미화 145만 달러로,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 받았다고 말함.
 - 이번 사업은 황해도와 평안도 주민들에게 퇴비 만드는 법과 잡초 관리법, 가축 생산을 늘리는 방법 등을 전수하고 보건과 영양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임.

2017. 6. 1.

■ **프랑스, 대북 식량안보 사업 21만 달러 지원(미국의 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31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프랑스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2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에도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 지원과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사업에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음.
-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또 다른 비정부기구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올해 황해북도 소흥시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채소 생산 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각종 채소 재배를 늘려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 등 취약계층 4만3천여 명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미 NGO, 북한에 정수기와 방한용품 선적(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대북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지난달에 북한에 보내기로 한 미화 60달러 상당의 양동이 모양의 정수기 100대와 방한용품을 선박편으로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이 단체는 “선적이 완료된 지원물품들은 선박편으로 7월말 도착해 북한의 황해남도과 황해북도의 결핵 병원과 요양소 등 의료 및 공공시설 30여곳에 분배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에 따르면 정수기 한 대가 미화 약 60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10년 동안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함. 또한 이 단체는 정수기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결핵 치료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2017. 6. 2.

■ **WFP, 4월 北 취약계층 76만 명에 식량 지원(연합뉴스)**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취약계층 76만여 명에게 지난 4월 식량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WFP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VOA에 지난 4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76만400명에게 1천900t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힘. 이는 한 명당 한 달간 2천500g, 하루 83g에 해당함.
- 버 대변인은 “WFP가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4월 표준배급량의 3분의 2 수준 밖에 식량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말함.
- WFP는 내년 말까지 대북 영양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1억2천870만 달러(약 1천450억 원)가 필요하지만, 5월 말 현재까지 모금한 금액은 4천200만 달러(약 470억 원)로, 목표액의 32.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힘.